

# 이재명 “당이 정하면 따라야”...경선 연기론 탄력 받나

### 민주 지도부 “야당과 속도 맞춰 11월쯤 후보내야” 대다수 의견 당 후보들 “전원 합의 있어야” 신중론 속 공은 차기 당 지도부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이 다가오면서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을 위해 6월부터 경선 일정에 돌입해야 하지만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분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두 달 정도 시간표를 늦춰야 한다는 이른바 경선 연기론이 재등장하고 있다.

왔을 때만 해도 당내 1강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사가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야당과 속도를 맞춰 우리 당도 11월쯤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후보로 선출되면 6개월간 혼자 뛰어야 하는데 리스크가 크

다. 이전 후보별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은 경선 관리 권한을 갖는 차기 당 지도부에 넘어가게 됐다.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대선 후보들과 논의를 거쳐 경선 일정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당 대표 후보(기호순)들은 경선 연기론에 대해 ‘후보 전원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내 독자 구도를 구축한 이 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주자들의 공감대가 없으면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선 연기 가능성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긴 하지만 애초 경선 연기론에 대해 이 지사 측이 “일정을 혼드는 순간 내전”이라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입장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 지형이 악화될 상황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계 의원들은 경선 연기론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 측근 의원은 “원칙대로 해서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 후보가 9월에 선출되고 정기국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입법으로 실현하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후위 주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율 상승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경선 연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된다.

경선 일정을 바꾸려면 당헌 개정이나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결국 예정대로 갈 것이라 관측도 적지 않게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이성윤 배제

### 후보추천위 4명 법무장관에 추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올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후보군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결과에 대

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정할 예정이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현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려고 했다.

구본선(53·23기) 고검장은 인천 출신으로, 지역색이나 정치색이 뚜렷하고 중립적이라는 평이다.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대검 대변인, 대검 형사

부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추진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배성범(59·23기) 연수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소속 부패적결추진단에 부단장으로 파견가기도 했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검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그동안 유력한 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혀 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 현재 “지방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 ‘당선무효형’ 김삼호 광산구청장 항소심서 부활 탄력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公團)의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현재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놓고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인 최모씨 등 3명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청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김삼호 당시 공단 이사장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해당 조항은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

직원의 경선 운동 참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현재는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해 불 대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공단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현재의 결정은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된 김 이사장은 당원 불법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해 중단된 항소심 공판은 현재 결정서를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하면 재개된다.

김삼호 정장은 “현재의 결정에 따라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며 “구정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형석, ‘폭언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9일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

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 민원실뿐 아니라 정부부처, 법원 근무자, 사무실 내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 공공업무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법사위원장에 해남 출신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해남 출신인 박광온(수원정) 국회의원을 선택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박 의원에 법사위원직을 제안했고, 박 의원이 전날 밤늦게 수락했다”고 밝혔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과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

았다. 지난해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에 선출됐지만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위원장직을 두 달 만에 내려놓았다.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원내대변인은 “당 관례와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다시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약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